

古典文學에 나타난 對日感情

張 德 順*

一. 序 言

——〈倭〉에 대한 辯——

二. 說話世界에서 본 羅倭關係

——三國遺事와 日本書紀를 主로하여——

三. 作品世界에 나타난 對倭感情

——王亂後의 作品을 中心으로——

四. 結 言

一. 序 言

——〈倭〉에 대한 辯——

우리의 옛 文獻에서는 日本을 거의 千篇一律的으로 〈倭〉라고 일컬어 왔다. 〈日本〉이라고 쓴 例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다. 例컨대

「倭國更號 日本 自言近日所出以爲名」⁽¹⁾

이다. 여기서도 〈倭國〉이 〈日本〉으로 國號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특별한 경우이다. 그러나 〈倭〉라고 쓸법한 경우에도 〈日本〉이라고 쓴 例도 없지 않다. 三國遺事에서 그 몇가지 例를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海東安弘記云, 九韓者 一日本 二中華 三吳越 四毛羅……」⁽²⁾

* 서울大·文理大 助教授, 國文學專攻, 本所研究員.

(1) 三國史記 新羅本紀 卷六, 文武王十年條.

(2) 三國遺事 卷一 馬韓條.

「星柁即滅 日本兵還國」⁽³⁾

「一日延鳥歸海採藻 忽有一巖 負歸日本 國人見之曰 此非常人也」⁽⁴⁾

「日本王文慶 舉兵欲伐新羅」⁽⁵⁾

위의 引用例에서 註(2)를 除外하고는 모두 <倭兵>, <倭國>, <倭王>으로 記錄되어도 無妨할 것인데 왜 하필 <日本>으로 밝혔는지 이 방면에 門外漢인 나로서는 해명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같은 三國遺事에도 이렇게 <日本>으로 나오는 것은 極히 稀少하고, <倭>가 絕對多數로 나타나 있다. 그 一例로 日本과 가장 密接한 關係를 叙述한 記錄으로 보여지는 堤上說話⁽⁶⁾에서 본다면, <倭國>, <倭王>, <倭人>이 무려 16回나 나타난다. 물론 이 堤上說話는 日本에 대한 敵愾心에서 意識적으로 <倭>를 썼다고도 보겠지만, 故意的인 日本의 貶視觀에서 나온 것은 아닌것 같다. 오직 가장 慣習化된 呼稱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例는 文獻에 許多하다.

壬亂을 겪은 후에는 이와 다르다. 여기서는 徹底한 敵愾心에서 <왜놈>이 意識적으로 입에서 터져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壬亂以後의 文學作品에서는 <日本>이라는 記錄은 거의 볼 수 없고 반드시 <倭>로 記錄되어 있다.

本稿의 內容은 古典作品을 主로 한 것이기 때문에 古典世界에서 慣習化되고 常習化된 名稱인 <倭>가 많이 나오게 마련이다. 本稿에서 종종 <倭>가 引用되는 것은 筆者의 主觀的 感情에서가 아니다. 古典에서는 <日本>보다 <倭>가 더 實感있는 概念을 들어내기 때문이다.

여기 參考로 <日本>에 대한 興味있는 記錄을 敷衍하고 序言을 마치겠다. 日本側 文獻인 日本書紀에 보면 日本의 神功皇后라는 女人이 新羅를 征伐하여 新羅王에게서 降服을 받는 說話가 記錄되어 있다. 여기

(3) 三國遺事 卷五 戀星歌.

(4) 三國遺事 卷一 延鳥部. 細鳥女

(5) 三國遺事 卷三 元聖大王.

(6) 三國遺事 卷一 奈勿王 金堤上.

서 新羅王이 日本側에 하는 말 가운데

「吾聞 東有神國 謂日本 亦有聖王 謂天皇……」⁽⁷⁾

이라는 사실이 記錄되어 있다. 日本學者⁽⁸⁾에 依하면, 이 新羅王의 입에서 나온 <日本>이 日本文獻에 처음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日本>이라는 國號는 애초에 新羅에서 命名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 日本書紀의 記錄은 事實無根의 說話的 資料에 지나지 않지만). 日本書紀의 註釋學者인 黑板勝美는

「元來 日本은 韓의근본, <日出處>라는 概念에서 나온 것으로, 推測컨대 韓土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불리워진 名辭」

인것 처럼 해석했다.⁽⁹⁾ <日出處>란 것은 日本本土에서는 認識못하는 것이다. 이는 客觀的 位置에서 해뜨는 곳을 볼 수 있으므로 <日本>이라는 國號가 남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저들은 韓土에 있는 日本人들이 <日出處>라는 뜻에서 <日本>이라고 呼稱했을 것이라고 推測하고 있으나, 이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要컨대 日本側 說話에서 <日本>이라는 이름이 韓土에서 비로서 처음 불리워 졌다는 사실은 기상불 흥미있는 이야기이며, 또 이와 관련하여 韓土의 日·月神인 延島郎·細烏女가 모두 新羅에서 건너갔다는 韓國側 說話⁽¹⁰⁾들을 相互聯關시켜 볼 때 太陽을 中心한 韓·日說話의 比較研究는 重要的 課題라고 생각한다.

二. 說話世界에서 본 羅倭關係

——主로 三國遺事와 日本書紀를 中心으로 하여——

1) 瓠公說話

(7) 日本書紀 卷九 神功皇后.

(8) 黑板勝美(日本書紀註釋學者)

(9) <日本書紀精粹>日本思想叢書 第九編 p. 334.

(10) 三國遺事 卷一 延島郎, 細烏女說話參照.

三國史記에 瓠公이란 倭人이 바가지를 허리에 차고, 그 浮力으로 玄海灘을 건너서 新羅에 들어 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곧

「瓠公者 未詳其族姓 本倭人 初以瓠擊腰 度海而來 故稱瓠公」⁽¹¹⁾

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記錄에서 볼 수 있는 倭人渡來의 始初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이 瓠公이라는 人物이 三國遺事에도 나타난다. 그러나, 史記所載의 倭人인 瓠公이 遺事에 登場하는 瓠公과 同一人이라는 速斷은 그리 쉽게 내릴 수는 없다. 오직 說話的인 世界에서는 考察해 볼 만한 價値는 있다.

龍城國王의 王子인 昔脫解가 新羅에 漂着하여 어엿한 少年이 된 후 卍舍山에 올라가 都下를 살피며 살만한 곳을 두루 살폈다.

「其童子(脫解)曳杖率二奴 登卍舍山上作石塚 留七日 望城中可居之地 屍一峯如三日月 勢可久之地 乃下尋之 卽瓠公宅也. 乃設詭計 港埋礪炭於其側 詰朝至門云 此是吾祖代家屋 瓠公云否 爭訟不決 乃告于官 官曰 以何驗是汝家 童曰 我本治原 乍出隣鄉 而人取居之 請掘地檢看 從之 果得礪炭 乃取而居營」⁽¹²⁾

그러나 이 遺事의 瓠公이 史記의 瓠公과 同一人인 倭人이란 確證은 없으나, 上揭한 說話의 內容을 分析해 볼때 전혀 無根한 일은 아닌것 같다. 그것은 첫째로 脫解가 可居之地를 物色할 때 하필 瓠公의 宅地를 擇한 것은 우선 터가 좋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뼈맛을 수 있는 與件이 있다는 것을 豫知했기 때문이다. 그 與件이란, 瓠公은 그 族姓이나 根源이 未詳인 外來人, 특히 倭人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쉽게 뺏을 수 있다는 自信이 있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脫解가 自己의 先祖 때부터 代代로 살던 곳이라고 主張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礪炭이 나왔을 때 瓠公은 고스라니 宅地를 내놓고 말았다는 것은 瓠公은 그 땅에서 先祖때부터 살고 있지 않은, 소위 뜨내기의 居住者였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만일 瓠公도 先祖代代로 그 터에서 살았다면 어린 少年에

(11)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一 赫居世王 三十六年條.

(12) 三國遺事 卷一 第四 脫解王.

게 그렇게 오락오락 그 宅地를 빼앗기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셋째로 脫解도 사실은 新羅의 本土人은 아니었다. 그도 漂流해온 外來人이었다. 그러나 脫解는 이것을 合理化하기 위해서 「乍出隣鄉而人取居之」라고 辯明했던 것이다. 兩者가 모두 外來人이나 脫解는 自己 先祖가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證明하였을 때 (물론 詭計이지만) 瓠公은 과연 倭人이었기에 自信滿滿하게 여기 抗拒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推測이 가는 것이다.

脫解에게 宅地를 빼앗긴 瓠公이 史記에서 云謂한 瓠公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根據는 史記의 記錄이다. 이미 위에서 引用한 條와 같이, 赫居世王 38年條에서 瓠公에 대해서는 「本倭人」이라고 註釋을 달았고, 또 그 瓠公이 王의 特命으로 馬韓과의 修交를 위해 馬韓에 派遣되었던 사실을 記錄하였고⁽¹³⁾, 同卷 四 <脫解尼師今> 條에서 脫解가 瓠公의 宅地를 뺏은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專精學問，兼知地理 望楊山下瓠公宅，以爲吉地 設詭計 以取而居之 其地後爲月城」

이것은 遺事의 記錄과 同一하다. 만일 이 瓠公이 <本倭人>이 아닌 다른 人物이었다면 應당 여기에도 註가 붙었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同一人이 기때문에 註가 必要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南解王이 脫解를 駙馬로 맞아드린 것이 王5年이었으니 이는 瓠公이 馬韓에 다녀온 후 25年이오, 脫解가 瓠公의 宅地를 뺏은 사건이 있는 후 王은 脫解가 賢明하다고 해서 그에게 딸딸을 주었던 것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倭人 瓠公과 脫解의 宅地爭訟은 거의 疑心할 餘地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羅倭의 葛藤·反目は 이미 羅初에서 비롯했고, 韓土上에서 일어난 韓·日關係는 이것이 그 嚆矢라고 생각한다.

(13) 三國史記 新羅本紀 第一 赫居世王 三十六年條.

2. 延鳥郎・細鳥女說話

「第八阿達羅王即位四年丁酉，東海濱有延鳥郎，細鳥女・夫婦而居。一日延鳥歸海採藻，忽有一巖(一云一魚)負歸日本，國人見之曰：此非常人也，乃立爲王(按日本帝記，前後無新羅人爲王者，此乃邊邑小王而非眞王也)細鳥惟夫不來，歸尋之，見夫脫鞋，亦上其巖，巖亦負歸如前，其國人驚訝，奏獻於王，夫婦相會，立爲貴妃，是時新羅日月無光，日者奏云：日月之精，降在我國，今去日本，故致斯怪，王遣使求二人，延鳥曰：我到此國，天使然也，今何歸乎？雖然朕之妃有所織細絹，以此祭天可矣，仍賜其絹，使人來矣，依其言而祭之，然後日月如舊。」⁽¹⁴⁾

이 說話는 이미 序言에서도 잠간 言及한바 있는 우리나라 唯一의 日・月神話인 것이다. 이 日・月이 日本에 건너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日本의 太陽의 女神인 天照大神과 어떤 關聯性이 있거나 얽은가고 推測이 되나, 이는 더 考究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要는 이 延鳥郎 夫婦가 日本에 건너갔다는 說話에서 兩國의 關係를 窺知해 보려는 것 뿐이다.

遺事의 著者도 日本帝記를 引用하여 羅人으로서 日本의 眞王이 되었다는 記錄이 없으니, 이는 日本 邊邑의 小王이라고 推測했다. 여기 學例한 日本帝記는 日本書紀를 가르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연 日本書紀에는 이런 記錄이 없는가? 이와 꼭 같지는 않으나, 新羅의 王子가 日本에 渡來했다는 記錄이 日本書紀에 나온다. 그 記錄을 要約翻譯하여 소개하면 이러하다.

「新羅의 王子 天日槍이 來歸하다. 가지고 온 物件은 羽太玉一箇, 足高玉一箇, 鶉鹿鹿赤石玉一箇, 出石小刀一口, 出石杵一枚, 日鏡一面, 熊神籬一具, 코두 七種의 物件이다. 이것들을 但馬國이 所藏, 항상 神物로 삼다. (一說에 云, 처음 天日槍이 乘艇하여 播磨國에 碇泊하여 栗門에 있을 때에, 天皇은 三輪君의 祖 大友主와, 倭直의 祖 長宅市를 播磨에 派遣하여, 天日槍에게 問曰, 그대는 누구이며, 또 어느나라 사람인가, 天日槍 答曰 나는 新羅國王의 아들이다. 그런데 日本國에 聖皇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의 나라는 아우 知己에게 주고 여기에 歸化하였다 云云. 天日槍은 但馬出石의 사람 太耳의 딸 麻多能鳥를 娶하여, 但馬諸助를 낳고, 諸助는 但馬日槍杵를 낳고, 日槍杵는 清彥을 낳고, 清彥은 臣

(14) 三國遺事 卷第一 延鳥郎, 細鳥女.

道間守를 낳았다)』.⁽¹⁵⁾

이 天日槍의 渡日說話는 日本書紀外에도 古事記, 古語拾遺, 播磨風土記, 築前風土記(逸文)등 日本文獻에 散見된다. 따라서 渡日年代도 각각 다르다. 古語拾遺는 日本書紀와 같으나, 古事記에는 그 年代가 없고, 記錄은 應神朝에 실려 있다. 이름도 天日槍, 天日矛, 天日杵등이나 日本音으로는 한결같이 <アミノヒボコ>다. 年代, 이름이 多少 다른것처럼 그 說話도 前掲한 日本書紀의 것과 꼭 같지도 않다. 더욱 日本書紀의 說話는 사실상 三國遺事의 <延鳥郎·細鳥女>說話 곧 日·月神話와 類似的한 점은 없다. 여기 天日槍의 이야기이면서 太陽을 걸드린 說話를 日本側文獻에서 좀 자세히 翻譯 소개 하겠다. 古事記 應神紀에는 年紀를 밝히지 않고 아래와 같은 說話가 掲載되어 있다.

「한 옛날 新羅國의 王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天日槍이라고 하였다. 이 天日槍이 日本으로 건너왔는데 그 건너오게 된 動機는 新羅國에 늪(沼)이 하나 있어서 그 늪의 이름을 아구늪(阿具奴麻一奴麻는 누다로 늪이란 말이다)이라고 하였다. 이 늪가에 한 賤한 處女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여기에 하늘의 日光이 이 女子의 陰部를 비치고 있음을 역시 한 賤한 사나이가 보고 異常하다고 생각하여 항상 그 賤한 女子의 行動을 監視하고 있었다. 과연 그 천한 女子는 낮잠 잔 그 때부터 妊娠하여서 마침내 붉은 구슬(赤玉)을 낳게 되었다. 監視하던 천한 사나이는 그 女子에게서 그 구슬을 懇請하여서 항상 주머니에 넣어서 허리에 차고 다녔다.

이 천한 사나이가 하루는 산골짜기에서 밭일을 하는데 김매는 사람들에게 음식 을 갖다주기 위해서 음식 그릇을 소등에 싣고 산골짜기로 들어가는데 마침 그 나라의 王子인 天日槍을 만나게 되었다. 王子는 이 천한 사나이에게 물기를『왜 네가 飲食을 소등에 싣고 山으로 들어가느냐, 필시 이 소를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그 천한 사나이를 獄中에 잡아 가두려고 했다. 천한 사나이는 대답하기를『王子님 그런것이 아니외다. 只今 밭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할 따름입니다.』고 하였으나 王子는 그래도 용서하여 주지 않았다. 천한 사나이는 하는 수 없이 허리에 찻던 구슬을 꺼내어 王子에게

(15) 日本書紀 卷六. 垂仁朝 三年 三月條.

선물로 바쳤다. 구슬을 받은 王子는 그제야 천한 사나이를 용서하여 주고 그 구슬을 가지고 돌아와서 房안에 두었더니 어느사이에 그 구슬은 아름다운 處女로 化하여 있었다.

王子는 이 아리따운 처녀의 모습에 恍惚하여 마침내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王子의 아내가 된 구슬處女는 가지가지 갖난 飲食을 만들어서 항상 그 남편을 섬겼다. 남편된 王子는 구슬 處女의 정성에 그만 驕慢心을 이트켜서 도리어 아내를 욕하고 학대하게 되었다. 구슬處女는 『아마도 나는 당신의 아내될 사람이 아닌가 하오니 나의 어머니 나라로 가겠소』하고 가만히 작은 배를 타고 달아나서 바다를 건너 나니와(難波—지금의 大阪)에 머무르게 되었다.(나니와의 히메고소神社の 아가류히메신(阿加流比賣神)이 되었다).

이해 天日槍은 아내가 日本으로 도망간 것을 알고 쫓아 바다를 건너 나니와에 가는데 중간에 그의 길을 막는 神이 있어서 하는수 없이 다지마국(多遲摩國—즉但馬國)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 곳에 머물러서 다지마의 마다오(保尾)의 딸 사끼즈미(前津見)란 處女와 婚姻하여 아들 다지마모루수구(多遲摩母呂須玖)를 낳고, 모루수구는 히네(褰泥)를 낳고, 히네는 히나라기(比那良岐)를 낳고, 히나라기는 다지마무리(多遲摩毛理—다지마는 氏稱)와 다지마히다가(比多訶)와 기요히코(清日子)를 낳았다. 이 가운데 다지마히다가는 조카딸 되는 유라도미(由良度美)와 혼인하여 가쓰라기노다다카누카히메코(葛城之高類比賣命)를 낳으니 이 사람이 바로 新羅를 천다고 傳하는 神功后의 하라버지 되는 사람이다……」. (16)

同一한 天日槍의 說話이지만 이렇게 古事記와 日本書紀가 다르다. 日本書紀의 “日本國의 聖皇을 따라서” 天日槍이 歸化했다는 歸化說은 전혀 터무니 없는 造作같기도 하다. 日本側의 다른 文獻을 참고해 보아도 이것의 虛荒함을 알 수 있다. 곧 日本의 地方誌인 播磨風土記에 依해도 天日槍은 여러가지 武器를 배에 싣고, 日本에 上陸征伐하여 그 威勢가 당당하였다고 傳하고 있다.

要컨대 天日槍은 自己의 아내를 찾는다는 핑계로 日本征伐의 野望을 품고 日本에 上陸하였다는 것이 어느모로 보나 理에 맞는 이야기이다.
李丙燾氏도

(16) 韓日文化研究所(釜大), 加羅史草 p. 135.

築前風土記(逸文)에 依하면 伊都縣(今糸島郡)주의 祖는 日槍으로서, 日槍은 新羅의 意丹(オロ)山=즉 蔚山=에서 來航하였다 한다. 伊都는 즉 新羅人의 一寄船所요, 또 植民地였던 것이다. 日槍은 瀬戸内海에서 播磨・但馬(지금의 兵庫縣), 淡路를 占領하고, 難波를 經營하고, 淀川을 거슬러 北征에 올라 敦賀에 까지 이르렀다. 其中 但馬는 日槍의 據地로, 特히 但馬의 有名한 出石大社는 日槍의 遺品을 所藏한 곳이라고 傳하며, 播磨의 白國(シラクニ)神社(姫路市邊), 敦賀의 白城(シラギ)神社(延喜式)는 다 新羅人의 祖廟이었다.⁽¹⁷⁾

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日本側文獻인 古事記의 天日槍說話와 우리 文獻의 延鳥郎・細鳥女說話의 關聯性이다. 우선 그 共通點은 夫婦가 모두 日本에 건너갔다는 것이 그 첫째요, 둘째는 모두 日本에 건너가서 貴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셋째는 한결같이 太陽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點은 첫째 우리의 것은 男便이 먼저 건너갔는데, 저쪽은 아내가 먼저 건너갔다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의 文獻은 그 夫婦가 日・月의 精임을 밝혔으나, 저쪽은 그것이 밝혀져 있지 않을뿐 아니라, 天日槍의 아내가 太陽의 精氣를 타서 태어났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兩側이 모두 女人이 太陽과 관련된 사실이다. 遺事에 경우 延鳥郎・細鳥女가 나라를 떠난후 곧 빛을 잃었다고 했으나, 그 빛을 회복한 것은 細鳥女가 짚 細絹로 因했다는 것이다. 延鳥郎이 먼저 日本으로 건너갔을 때에는 日・月이 빛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는데, 細鳥女가 離國하자 곧 日月이 無光했다는 것은 결국 女人이 빛의 神이었음을 알겠다.

한편 古事記의 경우에도 賤女가 太陽의 빛을 받아서 잉태했고, 또 그 낳은 것이 빨간구슬(赤玉)이요. 그 구슬이 女子로 化했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赤玉>이란 결국 太陽을 象徴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太陽과 관계가 깊은 女人들이 新羅에서 日本에 건너갔으니, 神話的인 세계에서 볼 때 이는 필시 日本에 가서도 太陽의 구실을 맡게 되는 것이다.

(17) 李丙巖著 國史大觀 p. 69.

그리고 延鳥郎과 天日槍의 說話는 各各 다른 두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太陽의 女神說話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推測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의 太陽의 女神인 <天照大神>에 까지 이끌려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古代의 日本民族은 大陸에서 韓半島를 거쳐, 섬나라인 日本으로 移動한 民族에 依해 形成되었다는 歷史的 常識을 생각할 때, 太陽神의 日本移動의 神話的 可能性도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니다. 史學家丁仲煥氏는 加羅史草에서 이 可能性을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다.

「……말하자면 日本의 支配氏族들은 <야마토>族이나 <이즈모>族이나 모두 半島에서 흘러들어왔다는 것을 알수 있는 바로 半島는 日本에 대하여 <어머니나라><뿌리나라><祖上의 나라>라고 그들 自身の 記錄에서 말함이 決코 偶然한 일이 아니라 하겠다」⁽¹⁸⁾

우선 이렇게 日本民族의 源流가 韓半島에서 들어간것이라고 說明하였다. 그리고 氏는

「여러가지 記錄과 傳說, 神話와 其他 證徵이 될 수 있는 遺物 遺蹟等에 依하여서 所謂 日本의 이즈모(出雲)系統은 新羅의 植民地이고, 야마토(大和)系統은 加羅의 植民地가 아니었던가 한다. 日本書紀에 傳하는 任那王子 소나가시찌(蘇那曷叱智)說話와 新羅王子 天日槍의 說話은 이런 意味에서도 兩쪽을 代表하는 抽象的 表現人物이라고도 볼 수 있다」⁽¹⁹⁾

라고 하여 新羅는 日本神話에서 말하는 所謂 <뿌리나라><根國>이고 日本의 <天照大神>의 근원은 任那國이라고 推斷하고 있다.⁽²⁰⁾

要件대 遺事에 나오는 延鳥郎의 아내 <細鳥女>와 古事記에 나오는 天日槍의 아내 <赤玉>이 한결같이 太陽神이며, 이들이 渡日하였다는 說話는 應당 日本의 太陽의 女神인 <天照大神>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 日本民族의 形成과 古代의 韓日兩國의 相互關係를 생각할 때

(18) 韓日文化研究所, 加羅史草 p. 139.

(19) 韓日文化研究所, 加羅史草 p. 146.

(20) 韓日文化研究所, 加羅史草 p. 146.

실로 興味있는 課題라고 생각한다, 如何間 이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은 研究가 期待되는 것이다.

3) 堤上說話

新羅 奈勿王의 두王子가 日本과 高句麗에 各各 人質로 잡혀갔는데 이 두王子를 救出해 온 者가 堤上이다. 이 堤上의 王子救出說話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모두 실려 있다. 그러나 이 두 文獻의 대체의 줄거리는 같으나 多少 相異한 것도 없지 않다. 例컨대 堤上의 姓이 史記에는 朴이오, 遺事에는 金으로 되어 있고, 王子의 이름도 약간 다르고, 救出方法도 다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說話的 興味로나, 그 價値로 보아 遺事의 記錄을 中心으로 다루겠다. 여기 日本에 人質로 간 美海王子에 관한 記錄단을 抄하여 引用하겠다.

「那密王即位36年庚寅 倭王遣使來朝曰 寡君聞大王之神聖, 使臣等以告百濟之罪於大王也 願大王遣一王子 表誠心於寡君也 於是王使第三子美海(一作未吐喜)以聘於倭 美海年十歲 言辭動止猶未備具 故以內臣朴娑覽 爲副使而遣之倭王留而不送三十年(中略)行至倭國 詐言曰 雞林王以不罪殺我父兄 故逃來至此矣 倭王信之 賜室家而安之 時堤上常陪美海遊海濱 逐捕魚鳥 以其所獲 每獻於倭王 王甚喜之而無疑焉 適曉霧濛晦 堤上曰 可行矣 美海曰 然則偕行 堤上曰 臣若行 恐倭人覺而追之 願臣留而止其追也 美海曰 今我與汝如父兄焉 何得棄汝而獨歸 堤上曰 臣能救公之命 而慰大王之情則足矣 何願生乎 取酒獻美海 時雞林人康仇麗在倭國 以其人從而送之(中略)王使騎兵逐之 不及 於是因堤上問曰 汝何竊遣汝國王子耶 對曰 臣是雞林之臣 非倭國之臣 今欲成吾君之志耳 何敢言於君乎 倭王怒曰 今汝已爲我臣 而言雞林之臣 則必具五刑 若言倭國之臣者 必賞重祿 對曰 寧爲雞林之犬狗 不爲倭國之臣子 寧受雞林之箠楚 不受倭國之爵祿 王怒 命屠剝堤上脚下之皮 刈薰葭 使趨其上(今薰葭上有血痕俗云堤上之血) 更問曰 汝何國臣乎 曰雞林之臣也 又使立於熱鐵上 問何國之臣乎 曰雞林之臣也 倭王知不可屈 燒殺於木島中(下略)」。(21)

說話의 세계에서 日本을 敵對視하게 된 것은 이것이 아마 처음이 아

(21) 三國遺事 卷一 奈勿王 金堤上.

닌가 생각한다. 이미 言及한 瓠公說話에서는 단순한 爭訟이었고, 延鳥郎・天日槍說話에서는 韓日感情이 比較的 友好的이었다고 보아지지만 이 堤上說話에 이르러서는 그 感情이 극도로 銳敏하여 졌다. 위의 引用文에서 堤上和 倭王과의 對話와 그 極刑의 場面등은 이를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다. 곧 「寧爲雞林之犬狔, 不爲倭國之臣子, 寧受雞林之箠楚 不受倭國之爵祿 云云」한테 이르러서는 그 敵愾心이 烈火같이 치밀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倭王도 剝皮, 刈蕪葭, 단근등의 殘忍한 酷刑을 加하다가 마침내는 焚刑에 처했다는 것은 이른바 不俱戴天之 원수의 사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이 美海王子의 人質事實은 日本書紀에도 傳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日本의 <神功皇后>가 新羅를 征伐하였다는 그야말로 神話같은 이야기에 나오고 있어 信憑性은 전혀 없으나, 참고로 여기 要約引用하겠다. 아래의 이야기는 神功이 이미 新羅에 上陸하여 王의 降服을 받고 王都에 들어가는 대목부터이다.

「皇后는 마침내 그 나라에 들어가서 重寶의 府庫를 封하고, 圖籍文書를 收納하고, 皇后의 �(矛)을 新羅王門에 심어서 後世의 증거로 삼게했다. 그 �은 지금도 여전히 新羅王門에 서 있다. 그리고 新羅王 波沙寐錦은 微叱己知波珍干岐를 人質로 삼고 金銀, 其他 綾羅縑絹을 많은 배에 실어서 官軍을 시켜 日本으로 보냈다.」⁽²²⁾

이 日本書紀와 三國遺事의 記錄을 比較해 보면, 그 두드러진 差異는 아래와 같다.

遺 事	書 紀
1. 那密王의 第三王子를 人質로.	1. 波沙寐錦이 波珍干岐(宮名)를 人質로.(王子라고 밝히지 않았다).
2. 王子의 이름이 美海, 혹은 未吐嚙(三國史記에는 未斯欣)	2. 波珍干岐의 이름이 微叱己知(미시고지)
3. 那密王36年(391. A.D)에 人質로 가다.	3. 波沙王代(80~111. A. D)에 新羅國都에서 神功에게 人質.

(22) 日本書紀 卷九 氣長足姬尊(神功皇后)

이 記錄들은 물론 歷史的인 根據가 薄弱한(日本側記錄이 더욱 그러하다) 說話的인 世界의 事件이므로 年代나, 王名을 全的으로 認定할 수는 없으나, 오직 참고 삼아 비교해 보는 것임을 여기 밝혀둔다. 이는 如何間, 兩本이 新羅王의 年代的 差異가 近 280餘年에 달하고, 더욱 日本書紀自體를 놓고 보더라도 神功이 新羅를 征伐했다(史實에는 그 근거가 없지만)는 해가 神功 2年(202)인데 이 해는 新羅의 奈解王 7年이다. 그런데 人質로 받은 微叱己知는 波沙王代이니, 約 100年의 出入을 갖어 오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注目을 끄는 것은 王子의 이름이다. 遺事의 <美海>, <未吐喜>와 史記의 <未斯欣>은 日本書紀의 <微叱己知>와 그 音寫에 있어서 비슷하다는 것이다. 아득한 神話같은 時代의 記錄이니 王名이나 年代의 차질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오직 당시에 新羅의 王子가 日本으로 人質로 잡혀간 事實이 있었다는 것은 遺事, 史記, 日本書紀등의 記錄으로 推測할 수 있고, 그 王子가 美海·未斯欣·微叱己知등으로 나타나는 同一人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王子의 脫出 事實과, 이에 따르는 兩國의 敵對的 感情은 日本書紀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여기 提上이 日本에서 當한 것과 거이 洽似한 事件이 新羅에서 倭人인 調吉士伊企儼라는 人物에 依하여 연출되었다. 이는 羅倭관계 說話에 있어서 중요한 資料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는 것이 또 흥미롭다. 欽明紀 23年條의 羅倭關係는 대강 이러하다.

23年 春 正月에 新羅는 任那를 쳐부셨다. 6月에 欽明은 詔勅을 내렸다. 曰 『新羅는 西方의 賤한 나라이면서 天朝에 拒逆하여 無禮한 짓을 저질러, 우리 恩義에 배반하고 있다. 이에 任那의 官家를 쳐서 우리 臣民을害하고, 韓土에 있는 우리의 那縣을 멸망시켰다. 옛날 氣長足姬尊(神功皇后)은 新羅가 窮迫하여 我國에 依賴하는 것을 불상히 여겨, 新羅王의 머리(首)를 그냥 두고, 더욱 要

事務所全體의 일을 하는데에는 한트(Hunt)와 나 그리고 韓國人 한사람만 가지고도 充分할 것입니다.」⁽²⁸⁾라고 하였다. 서울의 海關本部가 그러할뿐 아니라 仁川 釜山 元山의 海關도 人員이 이미 넘어 많기 때문에 이 人員들을 그리로 보낼수도 없었다. 三口의 稅務司들도 모두 適格者가 못되었다.

그러나 메릴로서 그中에도 第一 두통꺼리는 頭等幫辦인 英人허치슨(Hutchison 轄治臣)과 頭等會計인 獨人크니플러(Kniffler 克呢佛拉)의 處理問題였다. 이 兩者는 모두 高俸을 받고 있는데(허치슨은 月墨銀300弗 크니플러는 250弗) 海關業務에는 經驗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穆이 그 自身이 解雇되기 直前에 부랴부랴 海關에 任命해준 사람들이다. 穆이 朝鮮海關員의 任命權을 가지고 있던것은 認定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들의 任命自體는 法的으로 否認되기 어렵다. 허치슨은 本來 香港의 郵政局長(Postmaster General)이라는 重職에 있다가 1884年 夏에 穆의 招聘으로와서 5年間의 契約으로 任命되었기때문에 解雇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밖의 人員들은 若干의 補償이나 해주고 解雇할 수 있는 形便이 었다.⁽²⁹⁾ 그런데 허치슨에게는 그後 解雇시킬 理由가 드러났던 것으로 推測된다. 즉 穆이 解任되기 直前에 허치슨을 海關員으로 任命함에 있어서 任命日字를 遡及시켰다는 不正이 이미 一部에는 알려져

(28) Merrill Letter Book, Vol. 1. Merrill to Hart 및 Merrill to Detring. 1885年 5月 26日字의 두 書翰. 이 後者의 書翰에서는 또 自己와 한트외에 現在의 人員數를 들었는데 自己와 한트외에

頭等幫辦(Chief Secretary) 1名
 頭等會計(Chief Accountant) 1名
 英人書記(English Clerk) 1名
 中人書記(Chinese Clerk) 1名
 韓人書記(Corean Clerk) 1名
 鈴(扞)字手(Tidewaiter) 1名

가 있다고 했다. 즉 歐人職員이 4名이고 中韓人이 各 1名이었다.

(29) 以上은 모두 同上의 兩書翰.

고, 日本은 新羅의 任那征伐과, 伊企難의 憤死에서 불꽃을 튀게 했다고 생각된다. 日本書紀에는 日本이 任那와 百濟와의 友好交隣을 맺고 제법 交流가 좋았으나, 항상 新羅가 이를 妨害하여 왔다는 記錄이 無數히 나온다. 이런 意味에서 羅倭는 거이 不俱戴天의 怨讐사이가 되고 말았다.

아득한 옛날부터 羅倭兩國은 왜 이와같은 관계가 되었는가? 그 動機는 어디에 있고, 그 責任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好戰的이고 侵略的인 日本에서 비롯한 것임은 日本側文獻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日本書紀 仲哀紀와 神功紀에 있는 新羅征伐의 動機를 아래에 소개하여 이 說明에 대신하겠다. 仲哀가 天皇이 되었을때 王은 群臣에게 구마소(熊襲)를 토벌하려 할 때 神이 皇后(神功)를 依託하여 말하기를,

「天皇은 어찌 熊襲이 歸服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십니까? 熊襲이란 나라는 不毛의 땅으로 討伐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이 나라보다는 훨씬 훌륭한 寶物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마치 아름다운 女人의 눈섭처럼 우리 맞은 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눈도 부실정도의 金과 銀, 그리고 그 밖에도 아름다운 財寶가 많습니다. 그 나라를 栲衾新羅國이라고 합니다. 만일 자기를 잘 祭하면 반드시 싸우지 않고 그 나라는 歸服할 것입니다. 그러면 熊襲도 또 歸服할 것입니다. 云云」

이라고 했다. 그러나 仲哀는 이 神託을 받고 높은 山嶽에 올라서 그 美人의 눈섭같은 나라를 찾아보았으나, 거기에는 망망한 바다 뿐이었다. 仲哀는 화가 났다.

「바라보이는 곳은 바다 뿐이지, 國土는 보이지 않는다. 大蒼空에 나라가 있을 理도 없지 않은가? 어떤 神이 朕을 속였구나.」

이렇게 중얼거리고 그는 熊襲을 討伐하였다. 그러나 失敗했다. 仲哀가 죽고 그 妃인 神功이 攝政하자 이 寶物의 나라에 대한 野望은 컸다. 곧 神에게 제사하고 外征의 準備를 서둘렀고, 또 親征의 앞장을 섰던 것이다. 이 女人은 親征에 앞서 松浦縣, 玉島里의 냇가에서 바늘을 꼬부러 낚시를 만들어 강에 던지면서

「나는 지금 西方의 財寶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데, 이 일이 成功할 것인가?
그 징조있다면 강의 고기는 이 낚시에 걸리라.」

고 낚시를 건지나 大鮑이 걸렸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寶物의 나라인 新羅를 侵略하려 했고 또 侵略하여 羅王의 降服을 받고, 그리고 微叱己知까지 人質로 잡아온 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이 新羅征伐은 史實과 附合되지 않으나, 說話의 世界에서만이라도 倭의 新羅征伐은 전혀 大義가 서 있지 않다. 不毛의 땅인 熊襲을 칠바에는 차라리 沃土요 寶物의 나라인 新羅를 침략하려는 것은 太古적부터 日本의 꿈이요, 理想이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끝으로 興味있는 挿話하나를 소개하고 이 項을 마치겠다. 그것은 新羅征伐의 女傑 神功은 일찌기 太陽의 女神인 아내를 따라 日本에 건너간 新羅의 王子 天日槍의 血緣을 얻어서 태어났고(前出) 二次 新羅征伐(仁德 53年—365—에 新羅가 朝貢하지 않는다고) 때의 征羅將軍 田道間守도 天日槍의 直系子孫이라는 것이다.

三. 作品世界에 나타난 對倭感情

——壬亂後의 作品을 中心으로——

新羅를 계승한 高麗도 항상 日本의 海賊 즉 倭寇의 邊侵이 있어 그 感情이 좋지 않았었다. 마침 大陸의 元이 日本征伐을 종용하여 高麗는 마침내 金方慶으로 하여금 元과 함께 日本征伐에 나서게 하였다. 金方慶은 對馬島에서 크게 功을 세웠으나 兩次的 征伐에서 麗元聯合軍은 失敗하고 말았다.

忠烈王代에 對馬島, 一岐, 松浦등에 物產에 굶주린 倭寇들이 빈번히 우리의 邊境을 侵略하여 朝廷에서는 크게 골치를 앓았다. 이 倭寇들로 우리 朝野는 점점 日本에 대한 感情이 惡化되어 友好的인 善隣의 氣運

은 엿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海峽하나를 이웃해 있는 地理的 條件은 現實的으로 그냥 絶緣의 상태에 놓여 둘수는 없었다. 이에 李朝初에는 三浦開港과, 對馬島와의 癸亥條約을 맺는등 臨時 彌縫的인 對日政策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 日本의 勢力은 無視할 수 없었다. 成宗 6年에 申叙府가 病卒할때 王이 나라를 위해 달해 줄것을 청했을 때 叙府는

「願國家 無與日本失和」

라고 하여 이미 日本은 無視할 수 없는 이웃임을 경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宣祖 25年에 倭軍은

「中國을 칠테니 길을 빌리라」

는 과연 거리의 <짱패>말투로 突然 釜山浦에 上陸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日本의 神話時代부터 神功의 꿈은 實現되어 <美女의 눈섭같은 나라>, <기름진 寶物의 나라>는 倭軍의 말발굽아래 짓밟히게 되었던 것이다.

「일후에 애늬의 인종이 번성하면 다시 외람한 뜻을 두어 조선의 큰 화근이 되리라」⁽²⁴⁾

그 小説은 경고하였으나, 과연 倭軍은 이 예측을 그대로 實現에 옮겨 우리는 前無後無한 國難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國難을 素材로 한 小説은 壬辰錄을 필두로 李舜臣傳, 郭再祐傳, 金德齡傳, 權慄將軍傳, 西山大師傳, 泗溟堂傳등이 속속 創作되었다. 이 중에서도 壬辰錄(一名 黑龍傳—李慶善氏 校註)은 崔一台, 李舜臣, 鄭出男, 金德齡, 金應西, 李如松, 泗溟堂등의 人物이 등장하여 當時의 傳說, 說話를 총망라한 壬辰亂 素材의 叢書의 作品을 이루고 있다.

本項에서는 우선 前揭한 壬辰錄에 나타난 對倭感情을 아래의 몇가지 項目에 依해서 引用소개하고, 이어서 歌辭, 民謠, 傳說등에 言及하겠다.

(24) 古代小説 <흑농일지단>의 一節.

1) 壬辰錄의 경우

① 作品에 나타난 倭의 朝鮮觀.

「조선사람의 말(言語)이 그러하니(배우기 힘들다는 뜻) 그性情(性情)을 짐작하기 어렵고(속이 깊다는 뜻) 의관(衣冠)의 새것과 더러운 것을 그처럼 가리오니(이는 새옷 입었을 때는 깨끗한 곳에 있고, 먼지도 털고 하다가 옷이 낡아지면 함부로 군다는 뜻). 사람의 의복 더러운 것은 사람의 성질과 같이 평탄할 때는 뽐조심을 극진히 하다가 흉악한 경우를 당하면 신명을 돌아보지 아니하오니……」⁽²⁵⁾

이것은 倭將의 한 누이(姉)가 오빠에게 朝鮮征伐을 삼가하고 경계할 때에 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朝鮮사람이 무섭기 前에 朝鮮의 富와 沃이 그들 侵略의 軍침을 삼키게 했으니,

「……서로 의논하되 조선이 비록 소국강산이나 토지가 아름답고 가급(家給)이 인존(人足)해야 부요(議饒)한……」⁽²⁶⁾

云云한 것은 神功征羅때부터의 잠꼬대인 것이다. 이 기름진 나라, 寶物의 나라가 욕심이 나서 天人共怒할 壬亂을 挑發했던 것이다.

② 朝鮮의 倭觀.

「그 풍속이 귀신을 믿기 좋아하고 불도를 숭상하여 남자는 머리를 깎고 여자는 머리를 산발하고 남녀간 발을 벗고 성품이 음란하고 공교한 것을 좋아하매……」⁽²⁷⁾

싸울때마다 번번히 도망이나 가고 지기만하는 李朝人들은 못 죽어도 自尊心은 있어서 예로부터 日本을 野蠻族視하여, 禮儀를 모르고, 文化를 모르는 淫亂한 族屬으로 貶視해 왔던 것이다. 明나라에 대해서는 無條件 무릎을 꿇는 李朝가 日本에 대한 이런 高姿勢만은 아따도 新羅以後에 면면히 내려오는 先入觀念이기도 하리라.

③ 壬亂의 慘狀.

(25) 壬辰錄(흑룡일지단—黑龍日誌單).

(26) 同 上

(27) 同 上

「팔도 백성이 난을 보지 못하다가 뜻밖에 난을 당하니 남녀노소없이 서로 붙들고 통곡하며 피난하니 웃지 살기를 바라리오 이러한 우름소리 산천에 낭자하니 그 가련하고 불상한 경상은 차마 보지 못할너라」⁽²⁸⁾

「동랑이 밝아오매 도성안을 도라보니 선혜청에 화염이 총천하고……」⁽²⁹⁾

「이때 평양에 왜적이 강성하여 인민을 살해하며 육축을 노략하여 평양성내가 공허할 지경이라」⁽³⁰⁾

史上 未曾有의 戰亂을 당한 百姓들은 갈바를 모르는데, 窩城이라고 불이 일어난 것은 이미 王은 백성과 서울을 버리고 피난했을 때이다. 평양성내가 倭軍에 짓밟혀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노략당하는 판국이다. 이에 국민들의 倭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冲天하였다.

④ 全國民의 憤怒.

全國到處에서 義兵, 僧侶, 妓生들이 個別的으로 혹은 集團的으로 義擧하여 危機에선 國家를 건지려는 한편, 닥치는 대로 倭兵을 무찔렀다.

「이때에 각도 의병이 창지하매……의령의 과재우……권제독 녀술하든 조현 나주의 김천일 양산도, 합천에 정인홍과 손인갑과 김주민과, 고령의 김면과 수월의 홍은수 홍계남과, 봉산의 김만수와, 중화의 김진수…… 고경명…… 전현갑 임계명……」⁽³¹⁾

이것은 無名의 百姓으로부터 鄉吏, 前樂監, 提督에 이르기까지 全國에서 烽起하여 倭賊을 무찌르는 정경을 잘 설명하였다.

「이때 황해도 모향산에 휴정이라 하는 대사가 있으니……이때를 당하여 대가(大駕)가 의주로 파천하셨다는 말을 듣고, 대경하여 그제사 의엄이와 휴정과 영규로 더부러 의논하여 각도 사찰에 격서를 전하여 의병을 모집할새 의엄으로 도총섭을 삼고 호남으로는 처영이를 보내고……각각 본도 승병을 불러 수천인을 모아 평양으로 향할새 비록 접전은 하지못하나 길으로 경비를 잘하여 주고 힘드는 역사에 노력하매 각도 의병과 관군의 위세를 도우며 달탁과 지혜가 많아 그 공로가 적지 아니하더라」⁽³²⁾

(28) 黑龍錄, 48年版.

(29) 흑농일지단.

(30) 흑농일지단.

(31) 흑농일지단.

(32) 흑농일지단.

이것은 僭兵들의 蹶起를 묘사한 대목이다.

⑤ 倭에 向한 復讐

倭에 대한 敵愾心은 드디어 復讐로 나타났다. 이는 現實的인 복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픽손에 나타난 복수인 것이다. 물론 現實的으로도 部分的으로는 복수가 없지 않으나(妓生인 桂月香, 論介등의 경우)이 作品世界에서는 倭王의 降服을 받는다는 總體的이며 痛快한 假想의 복수인 것이다.

「폐왕이 할일없이 인끈을 목에 베고 용포를 벗어 땅에 깔고 두 무릎을 꿇고 이 팔고 두 손길을 마조잡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을 우리러 조선 사명당 전에 비나이다. 제발적선 살려 주옵소서」⁽³³⁾

「항서(降書) 쓰기를 재촉하니 수길(秀吉)이 필묵을 갖초와 항서를 쓰되 병신 십이월 십오일에 일본 황제는 조선대왕에게 항서를 올리오니 받으신후 형제지국이 되어 다시 킴범치 아니하기로 글월을 올리나이다. 하고 일본황제는 서(署)라 하고, 그 아래 관백(關白)은 서(署), 그 아래의 정대신은 서라 하고 또한 조공(朝貢) 물건은 무엇으로 하오리까?」⁽³⁴⁾

이렇게 倭國은 泗溟堂을 통해 朝鮮王에게 降書를 바치고 朝貢品目을 물었다.

「대사가 가마니 생각하되 조공을 정하자 하면 왜국물산으로 할 것이로되 원태 그 물산은 가취(可取)할 것이 없으며, 또한 사람으로 정하자 하니 의식(衣食)을 어찌 하리오. 일후에 왜놈의 인종이 변성하면 다시 외람한 뜻을 두어 조선에 큰 화근이 되리라. 하고 수길다려 왈 이제로부터 삼년만큼 사신을 왕내케 하되 조공물건은 여자의 나이 이십세 이하로 인피(人皮) 삼백장과 남자의 나이 이십세 이하로 불알 삼백쌍씩 바치게 하라」⁽³⁵⁾

「넉년이 인피 삼백장씩 하여 바치되 십오세 십육세된 규녀(閏女) 가족으로 바치고 또 불알 삼두씩을 바치되 십오세 십육세된 유아로 하라」⁽³⁶⁾

옛날 新羅의 忠臣인 堤上이 倭王앞에서 剝皮의 刑을 받더니, 이제 그

(33) 黑龍錄.

(34) 흑농일지단.

(35) 흑농일지단.

(36) 黑龍錄.

殘忍함이 倭의 處女에게 까지 禍가 미쳤던 것이다. 人皮와 鞏丸의 朝貢은 그야말로 想像이라 하지만 지나치게 非人道的이오 殘虐한 處事이다. 더욱 僧侶인 泗溟堂이 이렇듯 淒慘한 殺生을 하라고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古代小說이지만 너무도 지나친 表現같으나, 當時 우리의 倭에 향한 분노와 적개심으로서는 이것도 오히려 관내한 처사이었다. 생각같어서는 당장 전 倭人을 滅種시키고 싶은 철천의 怨恨이 사모쳤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 地球上에는 그런 人種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信念에서 僧侶인 泗溟大師도 漸次로 倭種을 滅種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說話乃至는 作品世界의 事件이지 어찌 現實에서 可能的 일인가? 이것이 現實的으로 不可能했기 때문에 倭族은 19세기 末에서부터 또 다시 近半世紀동안이나 이 땅을 짓밟지 않았던가?

2) 歌辭의 경우

① 蘆溪·朴仁老의 太平詞와 船上嘆

蘆溪는 30代의 壯丁으로 직접 壬亂을 겪었고, 釜山에서 戰鬪에 參加하여 倭賊을 막아서 싸운 實戰의 詩人이었다. 그는 壬亂을 素材로 太平詞를 남겨 놓았다. 아래의 記錄은 이를 설명해 준다.

「戊戌(1958)季冬 釜山屯賊 乘夜奔潰 時公佐 左兵使成允文幕 兵使聞即率軍馳到釜山留十餘日 後還到本營 明日使之此歌(太平詞)」⁽³⁷⁾

壬亂에 직접 從軍한 文人の 歌辭로서는 微溫할 정도의 對倭感情뿐이다. 극히 隱健하여 불타는 듯한 敵愾心은 없고 平凡한 對倭憎惡心과 함께 對明의 恩義를 지나치게 讚揚한데 지나지 않는다.

島夷百萬이 一朝에 衝突하여
億兆驚魂이 칼빛을 조차나니
平原에 쌓인 뼈는

(37) 蘆溪先生文集 卷之三 太平詞解說文.

피두곤 높아 있고 雄都巨邑은
豺狐窟이 되었거늘
淒涼玉輦이 蜀中으로 피아드니⁽³⁸⁾

“衣冠文物이 漢唐宋이 되어”있는 太平스런 이 강토에 “島夷百萬이”侵略하여 百姓은 죽고 君王은 피난했다는 것이다. 言必稱〈倭賊〉, 〈島夷〉가 고작 對倭憎惡의 表現이다. 이 太平詞는 倭賊이 모두 물러간 후 이 강토는 다시 “唐虞天地와 三代日月”을 理想하며 擊壤歌를 謳歌하며 또 다시 戰亂없는 太平歲月을 누리보자는 극히 消極的인 作品이다.

船上嘆은 太平詞를 지은 7年후인 그가 45歲때 統舟師로 釜山에 赴防하였을 때에 지은 것인데 이것도 壬亂을 回顧한 作品으로 여기에도 對倭感情은 나타나 있다. 倭人을 가르켜 〈海醜〉, 〈鼠竊〉, 〈狗偷〉, 〈蠹彼島夷〉등의 極烈한 語彙로 부른것은 蘆溪의 對倭憎惡心이 太平詞보다 훨씬 強烈하게 나타나 있다고 보겠다.

倭賊이 〈배〉를 타고 侵略했으므로 〈배〉를 만든 軒轅氏를 원망했고, 또 倭族은 모두 徐市가 引率한 童男童女의 後裔라고 假定하고, 空然히 얻지도 못하는 不老草를 구해 오라는 秦始皇을 원망하는등 憎惡心은 倭族의 根源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면서도 舟師로서의 傲然한 襟度도 보였으니 「蠹彼島夷들이 수이 乞降하야사라. 降者不殺이니 너를 구태 殲滅하라」고 한 것은 그래도 島夷라고 貶視하며 또 故意로 虛勢를 보이기도 했다. 壬亂의 傷痕도 가시지 않은 當時, 釜山을 지키는 舟師로서 더욱 눈앞에 對馬島를 바라보는 그에게 倭賊에 대한 敵愾心이 이 정도라도 불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② 金仁謙의 日東壯遊歌

英祖 39年(1763)에 金仁謙이 日本通信使의 書記로 隨行하고 지은 長篇 紀行歌辭가 日東壯遊歌이다. 壬亂이 지난지 거의 200年이 가까와

(38) 太平詞의 一節.

오는 당시이지만 仁謙은 이 壬亂과 관련하여서 日本人에 대한 感情은 지극히 나빴다. 日人을 野蠻族, 禽獸만도 못한 族屬이라고 無條件 無視한 表現이 作品中 處處에 나타나 있다. 國內旅程에서 壬亂때의 戰跡만 나오면 倭놈의 辱이다. 壬亂때의 元凶인 秀吉에 대한 敵愾心도 대단하여 作品中 두 세곳에 그 非難이 나온다.

「평수길에 사오남고 강성하여 높은 뿔은 낮게하고 낮은 뿔은 높게하고 바른 물은 예게하고 굽은 물은 곧게하여 뾰 하나 물하나물 고이 묻게 바이 없고 살인 을 여마(如魔)하며 인국(隣國)을 침로하고 대명을 범하라니 제 어이 망치 않으리」⁽³⁹⁾.

이것은 그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金仁謙의 倭人에 대한 蔑視와 勝癖은 作詩外交에도 나타나지만, 그甚한 것은 朝鮮의 通信使가 日本關白(當時는 源家治)에게 國書를 바치는 儀式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國書奉呈은 使臣들의 最大의 使命이며 또 可히 求景할만한 場面이지만 그는 “개돌같은 왜놈들에 배례하기 싫어서” 同僚들의 強勸도 뿌리치고 끝끝내 참석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후회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제 日東壯遊歌에 나타난 그의 對倭觀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① 日人風俗에서 본 對倭觀

日本 女人들이 속바지를 입지않고 서서 小便보는 풍속을

「바지 아니 입었기에 서서 오줌 누게 되련 고치의 사나히종 명지수건 갖었다가 손으로 씻겨주니 들으매 히연하다」⁽⁴⁰⁾

이렇게 표현하고 이어서

「제 형이 죽게 되면 형수를 제집삼고 다리고 살게 되면 착다 하고 기리지만 게 아우 질렀다고 제수난 못한다네 예번이 없어 금수와 일반일다」⁽⁴¹⁾

라고 하여 亡兄의 未亡人을 제 제집으로 삼는 그 風俗을 아주 禽獸와 다름없다고 唾棄했다.

(39) 日東壯遊歌의 一節.

(40) 日東壯遊歌의 一節.

(41) 日東壯遊歌의 一節.

② 淫亂한 女人들에 대한 非難

壹岐島에서 筑前으로 가는 途中, 某處에 배를 대고 있는데 부두가에 많은 倭女들이 나와서 通信使一行을 유혹하는데 어떤 女人은

「오날 집에 와서 날과 함께 자고 가소」

하는가 하면,

「젖배에 가르치며 고개조아 올라하며 불기 내어 두다리며 손저이 칭도하고
옷들고 아래보며 부르기도 하는」⁽⁴²⁾

淫亂한 女人들의 生態를 비교적 리알하게 묘사하고는

「엮치도 마이없고 풍속도 음란하다」

고 賤視했다. 先天的으로 對倭感情이 좋지 않은데다가 이런 色다른 風俗만 눈에 띄면 假借없이 非難하고 批判的이고 言必稱「獸禽같은 놈」이라고 無視해 버렸던 것이다.

③ 倭人들의 無禮와 殘虐無道

名古屋에 이르기 直前, 倭馬頭가 우리의 國書를 奉한 앞에서 下馬하지도 않고 오히려 傲慢無禮하며 우리 旗手가 下馬하라고 꾸짖었다. 이에 倭馬頭는 되려 우리의 旗手を 毆打하는 事件이 있었다. 이것은 案内官인 對馬島主의 謝過와 犯人을 處置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곧 해결되었으나 仁謙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흥분하였다. 역시 禮節을 모르는 野蠻人들이라고 唾罵했던 것이다.

그리고 大阪近處에서 留宿하고 있는 어느날 밤 倭놈이 칼을 들고 使臣一行의 宿所에 侵入하여 隨行員인 都訓導 崔天宗(大邱人)을 殺害하고 逃走한 事件이 벌어졌다. 이 일은 이 通信使에 있어서 가장 重大한 事件이었다. 殘虐無道한 倭人들의 포한한 性情의 一端을 잘 나타낸 것이라고 作者는 非難하고 있다.

④ 倭人에도 孝子가 있다.

(42) 日東壯遊歌의 一節.

壹岐島에서 使臣一行을 奉行하는 倭人 하나가 積복을 一切 입에도 대지 않아서 作者는 그 理由를 물었다. 倭人은 自己의 父親이 風浪을 만나 배가 大破하여 물이 새어들어 오는데 마침 키다란 積복 하나가 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막아서 禍를 면하게 되었고, 따라서 아버지는 自己 生命을 救해 준 積복을 먹지말라고 子孫들에게 遺言하였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仁謙은

「들으매 기이하다. 비록 왜놈이나 아비유언 지키는양 人心이 있다할까」라고 칭찬했다. 애초부터 <倭놈>은 人心이 전혀 없는 짐승으로 간주했다는 作者의 心情을 너무도 잘 이해할수가 있다.

3) 張漢喆의 漂海錄의 경우

英視 46年(1770) 12月에 濟州胎生인 張漢喆이 科試를 보려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風浪을 만나서 멀리 琉球列島에 漂流하여 九死一生으로 生還한 漂海記錄이 이 漂海錄이다. 이들은 風浪과 고래의 습격에서 겨우 살아나서 多幸히 無人絶島에 漂着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一行 29人은 조개와 積복을 따먹으면서 초조히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배 하나가 이들을 發見하고 이 섬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배는 이 一行을 救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倭놈의 海賊船이었다. 海賊들은 섬에 올라서 一行을 모두 나무에 꺼꾸로 매달고 옷을 벗기고 조금 남은 물건과 그 섬에서 拾得한 眞珠까지 모조리 뺏어가지고 저이들만이 도망갔던 것이다. 作者는 이 無人道的인 非情의 倭寇들을 이렇게 描寫했다.

「噫 倭奴譬也 義不可共載天…… 聞每吟 試到漢江江上望 二陵松柏不生枝之詩 不覺吼我膽 而泣我血 倭乎倭乎 如何斯兮 人千其劔 如何射兮 人萬其弩 夫天之生物也 俱有益於人 雖以秦虎之惡焉 而寢其皮則可以全吾軀 永蛇之毒焉 而用爲餌則可以已吾疾 而惟彼一種倭奴 則於人無一毛之利而其爲害也 有甚於秦虎永蛇 天胡生此生此直欲羅眞宰 而不可得也」⁽⁴³⁾

(43) 張漢喆, 漂海錄(人文科學 六輯)

倭人을 이 이상 더 욕한다면 아마 表現할 말이 없을 것이다. 飢餓와 恐怖와 焦燥와 함께 孤島속에서 배를 기다렸는데 못처럼 나타난 배가 倭賊이었고 또 놈들은 약탈과 暴行을 恣行하였으니 <倭奴讐也, 不可共載天>이라고 나올 수 밖에 없다. <별이나, 뱀같이 악한놈도 그 가족으로 몸을 덮을수 있고, 그 고기로 병을 고칠수가 있으나, 오직 저 一種倭奴은 사람에게 一毛之利도 없다. 하나님은 왜 요런 물건을 만들었느냐?>고 하늘을 원망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어떤 作品에서도 찾아 볼수 없는 저주요. 욕이다. 句句節節에 원수같은 <왜놈>에 대한 박감과 원원히 서리서리 서려 있다.

4) 民謠와 傳說의 경우

壬亂을 素材로 한 民謠 두 셋을 소개하겠다.

「네놈이 倭將淸正이 아니냐
 네놈이 安東三十里안에
 들어만 오면 들어만 오면
 내칼에 맞아 죽으리라」(安東)
 「淳昌妓生 義岩이는
 우리나라 건지라고
 倭將淸正 목을안고
 溍州南江에 떨어졌네」(全南谷城)

위의 민요는 壬亂당시의 倭將 淸正에 대한 復讐를 노래한 것이고

「할미성 꼭대기에
 陣을치고 倭兵丁
 오기만 기다린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軍威)

이것은 倭兵을 決死的으로 무찌르겠다는 臨戰의 態勢를 노래한 것으로 모두 壬亂을 계기로 한 反倭感情이 如實히 나타나 있는 것이다. 이 壬亂을 素材로한 이런 數의 民謠도 많지만 그 後 20세기의 日帝植民地 下에서의 抗日的인 民謠도 많으나 여기에서는 壬亂을 中心으로 하겠기

論外로 한다.

壬亂中心의 傳説에 관해서는 參考로 傳説集에서 그 統計만을 아래에 소개하겠다.

韓國民間傳説集(崔常壽編)에는 壬亂素材의 傳説이 모두 16 편이다. 그 內容을 分類해 보면

力戰常勝의 將軍으로(아라비아數字는 편수)

權慄……(2), 李舜臣……(1), 李如松……(2),

義士, 義兵의 復讐……(3), 妓生의 復讐(論介, 桂月香)……(2)

其他……(6),

으로 되어 있고 李明善註 壬辰錄所載 5 편은

1. 泗溟當과 지평이(靈驗)
2. 李栗谷과 火跡亭(豫知)
3. 論介(忠)
4. 申砬과 彈琴臺(妖女와 敗北)
5. 李舜臣과 강강수월래(國防).

壬亂을 素材로 하고, 더욱 倭賊에 대한 분노와 복수 또는 倭賊들의 婦女劫奪등에 관한 傳説이 各地方에 許多히 散在되어 口傳하고 있으나, 아직 그 綜合的인 整理가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우선 위의 두 文獻에서 題目만을 여기 提示하여 둔다.

四. 結 言

本稿에서 나는 멀리 羅初에서부터 壬亂後 英視朝까지의 걸쳐 主로 說話와 文學作品을 中心으로 韓日兩國間의 感情문제를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高麗朝의 作品이나 說話에는 이 兩國關係를 主題로한 것이 別로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新羅(그것도 古代社會)와 李朝(그것도 壬亂後)에 국한되고 말았다.

新羅에서는 三國遺事의 說話를 中心으로 했고, 이와 관련되는 說話를

日本書紀, 古事記 등에서 추려보았다. 要컨대 羅初에 羅倭關係는 <瓠公>・<延鳥郎・細鳥女>・<堤上> 등의 遺事所載의 說話와 <神功>・<天日槍>・<伊企儺> 등의 日本書紀・古事記所載의 說話를 中心으로 考察하였고, 李朝의 對倭感情은 壬辰錄系의 小說과 蘆溪의 歌辭, 金仁謙의 日東將遊歌・張漢喆의 漂海錄 등에 나타난 對倭憎惡感을 作品中에서 摘出하여 정리해 보았다.

海峽하나를 사이에 둔 이 두나라는 예로부터 좋은 이웃이어야 할 것인데, 兩國은 거이 宿命的으로 怨讐之間이 되었다는 것은 彼此 슬픈 歷史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슬픈 歷史의 傷痕이 文學世界에까지 歷歷히 남아 있다. 本稿에서는 그 微微한 一端을 살펴본데 지나지 않는다.

끝으로 本稿는 1964年 11月 4日 東亞文化研究所 主催 第三回 公開學術講座에서 發表한것을 補筆整理하여 여기 發表하는 것임을 밝혀둔다.